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2독서 필리피서 4,4-5)

[제1독서]..... 스바 3,14-18ㄱ

[화답송] ..... 이사 12,2-3.4나 다 르.5-6  
 (◎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 3,10-1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89] 주하느님 자비로이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sup>10</sup>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up>11</sup>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sup>12</sup>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sup>13</sup>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sup>14</sup>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sup>15</sup>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sup>16</sup>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sup>17</sup> 또 손에 키클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sup>18</sup>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통회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대림 합동 고해성사 : 12월 18일(화) 오후 3시-5시, 오후 7시-9시

### 묵상

‘기뻐하여라 주일’이라고 불리는 오늘, 교회가 우리를 깊이 있는 참된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이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히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한 바로 그 순간,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하며 모든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죄를 뉘우치고 참으로 회개한 이에게 내적 평화와 기쁨을 주시어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예언적인 선포는 그의 말을 듣던 군중이 제기한 질문에서 그 반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군중에게 참된 회개와 하느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라고 대답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세례자 요한의 설교

##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69)이 살았던 16세기의 네덜란드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국가였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는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모진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5세 때에는 폭정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런 암울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속을 툫터놓고 말하거나 세태를 비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속담이나 풍자를 통해 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진리에 대한 날카로운 칼을 갈았으며, 부끄러운 역사와 말 못할 진실을 담아냈다.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을 풍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의적으로 묘사하고,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전하며 상처받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풍자화가 바로 피터 브뤼겔이다.

그는 1530년경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그렸는데, 루카복음 3장 1-18절이 그 배경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루카 3,7-16)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군중이 높은 언덕배기 주위에 몰려들어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군중들 중에는 칼을 찬 군인도 있고,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들도 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도 있고, 지팡이를 들고 가방을 메고 여행 복장을 한 순례자도 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도 있고, 시녀의 옷을 입은 하인도 있으며, 좋은 옷을 입은 귀족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평민의 옷을 입은 농민들이다. 아이들은 나무에 올라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한다. 군중들의 시선은 중앙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로 집중되고 있는데, 광야에서 살았던 요한은 엉클어진 긴 머리에 낙타털로 된 자루 옷을 걸치고 두 팔을 활짝 펴고 설교를 하고 있다.



▲ <세례자 요한의 설교>, 피터 브뤼겔  
 ◀ 부분

군중은 어리석고 순진한 표정으로 몰입하여 경청하고 있는데, 전경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 엄청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잠담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 옷 위에는 개가 앉아 있어,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을 풍자적으로

욕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굳게 내리는 요한의 설교에 시선을 회피하고 잠담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작품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이 왼손으로 하늘색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정작 군중은 그들 안에 함께 있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만이 예수님을 밝은 빛으로 표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묘사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듯이 눈을 비비고 관찰해야 시야에 들어오도록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브뤼겔은 이같이 요한이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도 일상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가는 군중과 우리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대림 특강을 듣고!

##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 하느님을 향해 길들여지는 신앙인”

윤영미(로사리나) / 교육부 차장



허석훈 루카 신부

허석훈 신부님의 대림 특강 “길들여지는 삶”을 들으며 내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애초부터 하느님의 것이었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 드리며 그분을 향한 의미 있는 삶을, 종교가 아닌 ‘신앙 안에서’ 이루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

또한 우리가 삶의 욕망을 추스르고 하느님과 교감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만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걸 일깨워 주셨다. 우리의 삶이 조급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말씀은 숨가쁘게 살아가는 나에게 섬뜩한 일침과도 같았다.

또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음을 일깨워 주셨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만이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고 구원이시기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향해 길들여지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겠노라 대림 시기를 맞아 다짐해 본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 지게 하소서.  
당신 사랑 은총을 나에게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더 바랄 없오리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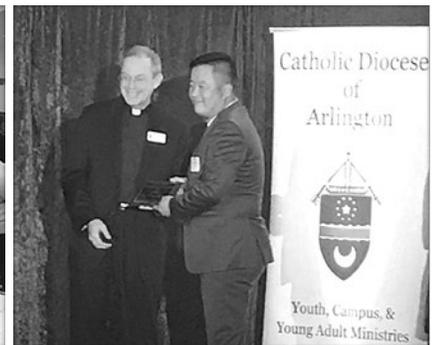


## 알링턴 교구 청소년국 주최 봉사자 디너

- 본당 강동철 형제 봉사자상 수상



알링턴 교구 청소년국 주최 봉사자 디너(Diocese of Arlington Volunteer Appreciation Dinner)가 지난 12월 11일(화) St. Joseph Church에서 열렸다. 본당에서는 청소년부 소속 주일학교 교리교사와 자모회, 로고스 청년부에서 23명이 참가해 올해의 봉사자상을 수상한 강동철(로베르토) 형제를 축하했다. 강동철 형제는 10년 이상 본당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교구 WorkCamp에 여섯 번 이상 참여했고,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받았다. 청소년 사도회에서 엄선하여 교구에 추천하는 ‘올해의 봉사자상’에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청소년 사도회

A PRAYER  
for the third Sunday of  
A D V E N T



Joy-filled Giver of Life,  
let the anticipation of your birth  
fill us with overflowing joy.  
May our excitement and anticipation  
be a sign to the world  
that you are always near. Amen.

Third Sunday of ADVENT December 16, 2018

Gospel Luke 3:10-18 (See the page 2)

Pointing the way to Jesus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we hear about the people being filled with expectation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Saint John the Baptist told the people how to prepare for his coming-by doing good and repenting of their sins.

At first the people thought that John the Baptist might be the Messiah. But

Saint John was only a messenger. We can think of him as a sign-post pointing the way to Jesus.

People came to see and hear him, and he showed them the way to God.

How can you be like Saint John the Baptist and show other people the way to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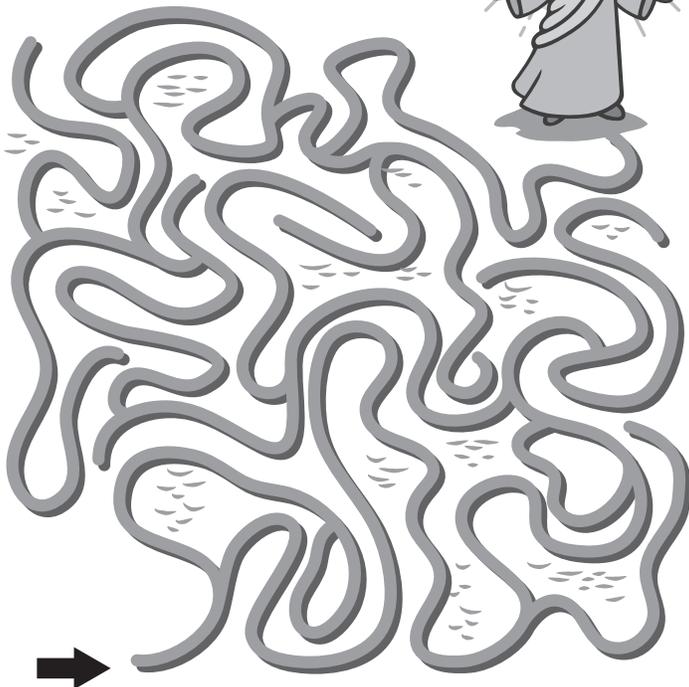
〈www.thekidsbulletin.com〉

FINDING THE WAY TO JESUS

In Advent we hear about Saint John the Baptist, Jesus' cousin, who prepared the way for Jesus' coming.

He preached to the people, telling them to repent, and baptized them. When Jesus came Saint John told the people to follow Jesus because He was the Messiah.

Can you find your way to Jesus?



NEWS

FAREWELL TO Fr. Bang  
"Father, we love you!"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n December 7, 2018 by the Most Reverend Kyu-man Cho(Basil), Bishop of the Diocese of Wonju, Korea, Rev. Myeong Jun Bang(Lawrence) has been appointed from Parochial Vicar to at St. Paul Chung Parish in Fairfax to stud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located in Washington, D.C. On behalf of the entire St. Paul Chung Sunday School community, I want to express our gratitude and appreciation for Fr. Bang's countless efforts, prayers and dedicated supports toward our parish children, young adults and adult volunteers as well. May God bless you always. "Father, we love you!"

그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이 사제 인사 발령에 따라 본당을 떠나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 가톨릭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 본당의 모든 어린이들, 청년, 그리고 성인 봉사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방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유학 생활 중에도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 Yunchong Boyle, CCD Asst.Principal

Celebrating  
the 3<sup>rd</sup> Anniversary of  
Fr. Bang(Lawrence)'s ordination  
to priesthood  
December 17

## 2018 CYO WINTER RETREAT



On December 7<sup>th</sup> to 9<sup>th</sup>, St. Paul Chung's CYO went to Brethren Woods Camp & Retreat Center in Keezletown, Virginia for their annual CYO Winter Retreat. With an amazing turnout of 42 students, 20 staff volunteers, eight moms, and three priests, the students had the chance to grow spiritually, emotionally, and mentally with their fellow students, teachers, and volunteers. Thank you to everyone who had a helping hand in making this winter retreat possible! Special thanks to Father Peter, Father Vacarro, and our very own, Father Bang! We love you!

*Ms. Susan Hong, 9<sup>th</sup> grade teacher*



### ANNOUNCEMENT



- **CCD(K-8<sup>th</sup>) Christmas Activity** during class hour (10am-11:20am)
- **Pizza Lunch** in the class rooms after 11:40am Mass



- **Christmas Break**  
No Sunday School  
No Holy Communion Class



### Great moments together

I really enjoyed the CYO Winter Retreat because the environment was amazing with the praise songs and everyone enjoyed it. We all came together as a family, and God gave us strength and courage during this time. All the small groups were great and allowed everyone to open up their minds and experiences. During our time there, we made a lot of new friendships. I learned that God is always with us no matter what situation you are in. We have a lot of great moments together at the CYO Winter Retreat. I hope everyone comes out to every CYO event because it is worth it to go to them. It is filled with amazing memories and experiences.

*David Yi, 11<sup>th</sup> grade*



### Activities to grow closer to God

I had a lot of fun at winter retreat! We played a lot of fun games, danced, did a LOT of praise, and the food was so good (*special thanks to the moms who drove all the way up to cook for us for one night and the kitchen staff*).

We had mass with Father Bang on Friday and a special mass with Father Vacarro, and he answered a lot of questions with some really interesting answers, he's really cool.

Guardian Angels were fun, all the special gifts people gave were creative. The witness talks were also so emotional. They were really deep and insightful. Overall, they helped me grow closer to God and changed my perspective on things. The trip was a lot of fun, and I'm glad I got to connect to the rest of CYO more!

*Chloe Kim, 11<sup>th</sup> grade*

## ★ 성탄 미사 안내 ★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일시 : 12월 24일(월) 오후 8시(구유예절로 시작)

###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일시 : 12월 25일(화) 오전 8시, 10시  
 •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주차장 부족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Northrop Grumman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 사제 수품 기념 · 송별 미사

새로운 소명을 받고 우리 본당을 떠나시는 방명준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사제 수품 기념 · 송별 미사 •  
 12월 16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 10 루카회 연말파티

• 일시: 12월 23일(일) 오후 6시(친교실), 부부 동반  
 • 문의 : 강세원 바오로(703-489-3938)

### 11 복사단 크리스마스 파티

• 일시 : 12월 24일(월) 성탄대축일 밤 미사 후(친교실 A-1,2)

### 12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제대회에서 성탄 제대 꽃 봉헌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 신청 : 황 줄리아 제대회장 (703)628-5262

### 성탄 판공성사표 발송

• 성탄 판공성사표와 2019년도 교무금 약정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타가 되어 주세요!

대림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 온 사랑 Giving Tree 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 교황님의 12월 기도 지향

#### 일반: 평화를 위한 봉사

사랑과 대화의 언어가 언제나 갈등의 언어를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2월에는 그동안 밀린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KACM TV 하이라이트

12월 20일(목) 오후 5:00-6:00  
 12월 21일(금) 오후 8:00-9:00  
 12월 23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특강 : 대림절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민병섭 바오로 신부 (리치몬드 성당 주임·성서학박사)

##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2월 9일(대림2주일)

주일헌금 ..... \$ 10,115.00  
 교무금 ..... \$ 21,5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8,410.00  
 특별헌금 ..... \$ 495.00  
 2차헌금 ..... \$ 5,681.00  
**합계 ..... \$ 46,26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지(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제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정미라(에스)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오),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말린),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견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호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16일(일)	대림 제3주일	미사 독서·해설사 모임(오전 9시), CCD 크리스마스 행사(오전 10시, 각 교실),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베드로회(오후 1시, A-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바오로 연말파티(오후 6시, 친교실),
17일(월)	대림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8일(화)	대림 제3주간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관), 대림 합동 고해성사(오후 3시-5시, 오후 7-9시)
19일(수)	대림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첫 영성체반(오후 8시, 하상관)
20일(목)	대림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1일(금)	대림 제3주간	사도 임원 회의(오후 8시, B-1,2)
22일(토)	대림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K of C 송년파티(저녁미사 후)
12월 23일(일)	대림 제4주일	예비자교리(오전 11:40),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루카회 연말파티(오후 6시, 친교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레드핀 소독</b>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마키엘) 703-881-1155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예비 펫 그루밍</b>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